

# 광주시의회 상임위 배분 갈등...원구성 늦어져

후반기 의장 김용집, 부의장 조석호·정순애 선출  
특정 상임위 의원 몰려...17일까지 원구성 마무리

광주시의회가 6일 임시회 본회의를 열고 더불어민주당 김용집(남구1) 의원을 제8대 후반기 의장으로 선출했다. 재적 의원 23명이 모두 투표에 참여해 찬성 17표, 무효 1표, 기권 5표로 과반을 얻었다. 김 의원은 "코로나19 지역사회 감염이 급속히 진행되고 있다"며 "시민들이 어렵고 힘들 때 힘이 되는 의회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후반기 제1, 2 부의장에는 조석호(북구4)·정순애(서구2) 의원이 각각 과반을 얻어 선출됐다. 시의회는 이날 상임위원장을 선출하지

못했으며, 행정자치·환경복지·산업건설·교육문화위원회 등 4개 상임위원장은 오는 9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선출하기로 했다. 의회 운영위원장은 9일 후보자 등록을 마감한 후 14일 본회의에서 선출한 뒤 17일까지 후반기 원 구성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애초 광주시의회는 이날 상임위원장들까지 선출할 계획이었지만, 신임 의장 후보 측의 주류 의원들이 상임위원장 자리에 욕심을 내면서 '내부 정리'를 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상임위 배분을 놓고 갈등을 빚으면서 상임위원장 선출이 늦어지게 됐다. 비주류 측 의원들이 상임위원장 5자리



김용집 의장 조석호 부의장 정순애 부의장

중 최대 2자리를 요구하고 있지만, 신임 의장 후보 측의 주류 의원들이 상임위원장 자리에 욕심을 내면서 '내부 정리'를 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상임위 배분을 놓고도 다수 의원들이 산업건설위원회에 몰리면서 위원회별 안배가 되지 않아 진통을 겪고 있다.

광주시의회 관계자는 "일부 의원들이 자리 욕심을 내면서 상임위원장 선출이 늦어지고 있고, 무수 이유에서인지 앞다 뒤 산업건설위원회를 희망하는 의원들이 많아 상임위원 배정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다수당인 민주당 소속 시의원들은 본회의에 앞서 내부 경선을 통해 이들 의장단을 단독 후보로 선출했다. 광주시의회는 민주당 21명·정의당 1명·무소속 1명으로 구성돼 있어 다수당인 민주당 후보가 사실상 의장단이 되어 왔다. /최권열 기자 cki@kwangju.co.kr

# '남도의병 역사공원' 조성 후보지 1순위 나주시 선정

광주전남연구원, 역사성·경관성·접근성 평가...2순위 보성

광주전남연구원(이하 연구원)이 6일 전국 규모의 '남도의병 역사공원' 조성사업의 대상지 1순위로 나주시, 2순위로 보성을 각각 선정했다. 6일 사업대상지 선정에 주관한 광주전남연구원(이하 연구원)에 따르면 남도의병 역사공원 유치에는 8개 시·군이 참여했으며, 객관적이고 공정한 평가를 통해 지난 3일 시·군을 선정 후 현장 실사를 통해 나주시와 보성군이 역사성과 경관성, 사업추진 용이성, 접근성 측면에서 후보지로 적합한 것으로 평가됐다. 남도의병 역사공원은 김영록 전남지사의 역점 시책사업으로, 의병들의 구국 충혼을 기리고 정의로운 역사를 일깨우는 남도민들의 영예와 자긍심을 고취하기 위한 대형 프로젝트다. '남도의병'이라고 이름 붙인 이유는 국난 극복에 앞장선 호남의 병 중 3분의 2가 전남 출신으로 전남도의 정체성과 도민의 자긍심 고취를 위해 붙인 명칭이다. 남도의병 역사공원에는 33만㎡ 규모에 박물관과 조형물, 역사숲 등이 들어서게 된다. 박물관 전시 프로그램은 모든 계층이 공감할 수 있도록 스토리텔링과 첨단 전시기법을 활용한 맞춤형 테마로 구성된다. 다양한 전시기법을 통해 보고 듣고, 느낀 오감체험이 가능할 뿐만 아니라 문화공간과 자연 휴식공간을 조화롭게 배치해

명소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전국 규모의 남도의병 역사공원이 들어서면 남도의 평범한 사람들이 의병이 돼 국난 극복에 앞장선 의로운 정신을 드높이고 나라를 구한 남도민의 구국 정체성 확립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함께 차츰 사라지고 잊혀지는 유물자료에 대한 체계적인 수집과 연구, 보존, 전시를 통해 국민이 역사문화를 이해하고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넓혀 역사교육과 함께 문화 체험의 장으로서 역할을 하게 된다. 앞으로 테마형 관광자원으로서 전남의 블루투어 자원으로 크게 환류할 것으로 보인다. 김영록 전남도 관광문화체육국장은 "시·군이 제시한 제안서의 구체적인 실행 가능성 여부를 비롯 부지 제공, 재원 부담 관련 시의회 등의 등을 확인해 빠른 시일 내 협약을 체결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전남도는 지난해부터 의병 유물자료 수집을 추진해 381점을 구입하고, 1점을 기증받은 바 있다. 박물관 개관까지 가치 있는 유물자료를 수집하기 위해 전남도 누리집(www.jeonnam.go.kr)을 통해 절차를 공고하고 유물자료의 매도, 기증·기탁 등 참여를 기다리고 있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그린 뉴딜 핵심 모델 '해상풍력 조성' 포럼 6일 오후 서울 국회도서관에서 열린 전남 서남권 해상풍력 산업생태계 조성 국회 포럼에서 김영록 전남도지사와 의원 식·서삼석·이개호·주철현·김희재·신정훈·김원이 국회의원, 김종갑(주한국전력공사 사장, 박우량 신안군수 등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 "송전망 확충·배후단지 선행돼야 신안 해상풍력단지 성공"

전남형 상생일자리 창출 '해상풍력 생태계 국회 포럼' 열려

전남도가 6일 신안 해상풍력발전단지 외 전남 서남권 해상풍력 산업생태계 조성으로 전남형 상생일자리 창출하기 위한 '해상풍력 산업생태계 조성 국회 포럼'을 개최했다. 이날 국회 도서관 강당에서 가진 포럼은 국회 기후위기 그린뉴딜 연구회(공동대표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김성환 의원) 주관으로 산업자원총상부와 일자리위원회, 전남도, 한국전력이 후원했으며, 국회의원과 전문가, 기업 관계자 등 관심 속에 열렸다. 포럼은 주제발표와 패널토론으로 진행

됐으며, 임춘택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원장이 '기후 위기 대응 그린뉴딜을 위한 에너지 정책', 배택후 전남도 일자리정책본부장이 '전남 서남권 해상풍력발전단지 조성계획'을 각각 주제발표했다. 패널토론에는 손충렬 세계풍력에너지협회 부회장, 김기환 한국풍력산업협회 대외협력부회장, 윤성혁 산업통상자원부 재생에너지산업과장, 김승철 전력연구원장, 차태병 SK E&S 신재생에너지 부문장 등이 참가해 다양한 의견을 교환했다. 해상풍력발전은 정부 그린뉴딜의 핵심사

업으로 국회, 정부, 산업계에서 많은 관심을 받고 있으나, 다수 당사자의 복잡한 이해관계와 부족한 산업 SOC, 국내 산업 생태계 미구축으로 인해 선진국에 비해 발전 속도가 지체되고 있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포럼에서 신안 해상풍력발전단지의 성공적인 조성을 위해 정부의 송전망 확충과 에너지개발구역 지정, 지원부담·배후단지 조성의 선행돼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일부는 민간발전사가 설치비용을 부담한 점속설비는 공공 인프라 성격이 강해 국비 지원을 통해 민간의 부담을 완화시켜 비용절감액을 지역주민에게 돌려주

고, 민간발전사의 참여를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참석자들은 국내 해상풍력 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해 전남형 해상풍력 발전시스템 개발사업에 대한 국가 지원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제도적 근거 마련을 위해 '해상풍력발전 활성화 및 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정이 필요하다는 데 동의했다. 김영록 전남지사는 "전남은 지난해 7월 지역 성장동력으로 블루 이코노미 비전을 선포하고 블루 에너지를 핵심 프로젝트로 추진중"이라고 전제한 뒤 "풍부한 해상풍력 자원을 활용한 전남형 상생 일자리는 국가적인 에너지 전환 정책의 기폭제가 되고, 그린뉴딜의 핵심 모델이 될 것이다"고 자신하며 정부와 국회의 전폭적인 지원을 당부했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 전남소방본부, 여수산단 위험시설 111곳 특별점검

전남소방본부가 최근 여수 화학공장 화재와 관련해 여수국가산단 내 주요시설에 대한 소방특별점검에 나섰다. 6일 전남소방본부에 따르면 이번 특별점검은 6일부터 오는 9월 30일까지 여수 국가산단 내 주요 석유화학공장을 비롯 대량유해물 처리 시설 등 111개소를 대상으로 실시한다. 이번 점검에는 소방 뿐만 아니라 전기, 가스, 산단 안전관리자 등으로 이뤄진 3개

반 18명의 TF팀을 구성해 민관 합동으로 추진된다. 전남소방본부는 화재안전에 필요한 준수사항 이행 여부를 점검하고 산단 내 위험요인을 확인해 이에 대한 개선 대책을 마련할 방침이다. 이밖에 특별점검 종료 후 산단 내 안전 관리 책임자를 대상으로 화재 재발 방지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 컨설팅을 추진할 예정이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 전남도농업박물관 '청정전남' 논 그림 완성

전남도농업박물관 농업테마공원에 조성된 논 그림이 윤곽을 드러내 눈길을 끌고 있다. 전남도농업박물관은 6일 '지난 6월부터는 그림 제작에 착수, 디자인과 설계, 표시봉 설치, 모내기까지 마쳤다'고 밝혔다. 올해는 그림은 민선 7기 전남도의 새천년 비전인 '청정 전남, 블루이코노미'의

앞 글자를 따 '청정 전남'이라는 문구로 표현됐다. 가로 110m, 세로 80m 넓이로 조성된 웅장한 논 그림은 오는 10월 추수전까지 비가 자라면서 매일 조금씩 뚜렷해지며 장관을 연출하게 된다. 그림을 관람할 수 있는 최첨단 박물관 내 '마실길 조망대'이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 모던 슬라브옥상 칼라강판 지붕공사 및 스틸방수

### 옥상지붕공사

옥탑이 없는 평 슬라브 주택 및 한옥 등은 칼라강판 지붕공사

### 옥상 스틸방수

갈라지고 물이 새는 옥상바닥 겨울의 차가운 냉기! 여름의 뜨거운 열기! 방수와 단열 한번에 해결!










**옥상지붕공사 및 스틸방수 무료견적**

**모던건설** (트윈스틸) 시공문의 062)531-3530 H.010-9229-3530

디자인 등록 제30-0934833호  
제30-0949873호 특허청

www.woori-hospital.com

의료광고심의필 제 200107-중-103754호



개원 17년간의 임상경험을 통한 정형외과 진료  
**첨단우리병원**



" 척추골절, 손목골절, 고관절골절 "

첨단우리병원에서 치료합니다.

대표전화 062) 970-6000

광주 과학기술원 첨단 쌍암공원 앞 위치